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전공

박사 이 광 자

성균관대학교 가족경영·소비자학 전공

교수 김 순 옥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Ph. D. : Lee, Kwang-Ja

Dept. of Family Life Management and Consumer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For this study, the data was gathered from 1,468 students in 15 classes(different divisions) at 9 high schools (3 Academic high schools, 3 Industrial technology schools, 3 Vocational high schools)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career development by gender.
2. As for the division factor, the recognition level of parental supports was higher in girls than in boys and the average of their career development level was also higher.
3. As for the division factor, the recognition level of parental supports was most highest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than in other groups and the average of their career development level was also the highest.
4.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arental suppor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 5 As for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on th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higher than other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The R^2 value was weak but still statistically significant.

▲주요어(Key Words) : 부모지지(parental support),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 진로결정(career decision)

1. 서 론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Waston(1970)이 출생 후 경험의 절대적 중요성을 제시한 것은 개인에게 미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한 것이다. 이는 곧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의해 자녀들은 키워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물론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되는 발달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논의 되어 왔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부부의 별거 생활을 감수하는 가족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그러한 부모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고 자녀의 성공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살고 있는 가족의 독특성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위기를 갖는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대부분 자녀들의 진학문제가 부모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부모에 의하여 상급학교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많아지도록 양육되어지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부모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3인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할 전공에 대한 확신감이나 현재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적고 진로에 대한 불안도 크며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 정도는 각 가정마다 다르지만 어느 나라보다 더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전공 분야가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더욱 자신감과 확신감을 갖고 그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rikson(1963)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직업에 몰입을 하게 되면 비행을 하는 일이 적어지고 자신의 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고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발달에 따라 그들을 지지하는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녀들의 진학선택에서 실업교육을 경시하고 고학력 승배에 대한 가치관, 부모 의견에 의한 상급학교 선정, 또는 자신의 성적에 의한 진학결정은 결국 도중에 진로변경이나 중도 탈락으로 되며 개인의 진로정체감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Spokane(1991) 역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Lopez와 Andrews(1997)도 개인의 진로발달에서 성취의 수준과 그 영역,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모두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

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특히 부모의 직접·간접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해 삶에 대한 태도, 가치관, 직업에 관한 관심,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행동과 가치를 선택하여 진로와 직업목표를 탐색하는 단계이며, 그들은 자율성을 갖게 되며 부모와의 심리적인 독립과 감정적인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통제와 간섭이 지나치면 갈등이 시작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형성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을 맞이하게 되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공평한 대우를 하면서 적절한 지지를 하게되면 안정된 진로선택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갖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부터 부모와의 갈등이 경험하며,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조차도 진로문제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김봉환(2001)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 문제를 보면 대부분 학업성적과 진학, 진로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진로 결정에 자신감도 없고 뚜렷한 목적 없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였다.

한편, 고등학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창 등(2002)의 연구에서는 진로와 직업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부모와 친척(71.1%), 친구나 선배(21.0%), 교사(3.8%)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기의 진로발달과정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으로는 주로 애착과 심리적 변인을 주로 다루었을 뿐, 부모 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 지지가 청소년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모지지 태도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지지의 개념

부모 지지란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 준다(김정애, 1994).

청소년들이 환경적인 영향(학교, 매스컴, 또래집단 등)도 많이 받지만 그들의 인격형성과 가치관, 사회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모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 되며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산되어져 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유희정, 1995).

부모 지지에 대한 내용은 학자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4가지로 구분한다.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랑과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정서적 지지;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중 등에 관한 평가적 지지;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제공 등에 관련된 정보적 지지;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였다(노미순, 1999).

2. 부모 지지와 관련된 연구동향

부모 지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되었다. Avison과 McAlpine(199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 지지는 청소년기의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관련되어 있고, Holanhan과 Moos(1995)는 연구결과에서 부모 지지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교의 적응력이 높고,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Peterson(1980)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기존중감이 높으며 좀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지지가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기르게 하며(Avison & McAlpine, 1992; Bandura, 1989) 문제해결 능력도 증진하며 건설적이고 덜 회피적이 된다(지선근과 한종철, 1992; 재인용). Cobb(1976)는 부모 지지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공지를 갖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정보라고 하였으며, 청소년기의 부모 지지는 그들의 자기존중감을 높여주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문제행동의 유발을 막는다고 한다.

이주연(2001)은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신에 대한 긍정도와 자아개념이 높아 진다고 하였다. Dignan(1965) 또한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되는 것이라고 한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상호 작용하는 타인은 부모이며, 그는 자아정체감을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통합된 자기상(self-image)이라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부모 지지가 자녀들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부모 지지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설명해주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 결정을 부모 지지에 따라 자신감을 갖기도 하며, 포기하기도 하는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 지지는 진로결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일반계, 실업계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학생들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의 권위와 명령은 자녀의 일방적인 진로결정자로서 행동하게 된다. 그러한 결과는 결국 자녀의 자발성, 독립성, 동기유발을 감소시키며,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다시 진로를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가장 중요한 진로계획과 진로정체감에 혼란을 가져오며 부모와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진로발달변인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Lent, Brown와 Hackett(1984)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통제하는 기제로 진로흥미, 선택, 발달에 가장 높게 관련되는 모델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모델을 내놓았다.

이 보다 앞서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을 제안하여 특정 과제에 국한되었던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들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및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진로 결정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Crites(1981)의 진로성숙이론에 기초 하였고, 이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부터 부모와의 갈등이 유발되며 상급학교 진로결정 시 주위의 부모나 형제의 지지에 따라 자신이 하는 공부에 더욱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검사도구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여러 진로이론가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존감(Lent & Hackett, 1987), 진로정체감(Robbins, 1985), 진로탐색 행동(Blustein, 1989)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해 주며 진로를 결정해야 할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심리적 기재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은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정체감은 자신의 태도, 동일성, 역할과 관련되고 역할과 관련된 개별적인 행동과 관련이 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

기로(Erikson, 1968), 그들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로 혼란 되고 진로결정과 선택에 당황하게 된다. 또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자아정체감 - 즉, 나는 누구인가? 거대한 사회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에 대한 느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한다(서봉연, 1983).

자아정체감은 Erikson(1963)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사람은 자신을 내적 동일성과 지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각해야 한다. 둘째, 자신과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서 같은 동일성과 일관성을 지각해야 한다. 셋째, 사람은 자신의 일관성이 의적, 내적으로 일치될 때 생기는 결과적 자신감(accrued confidence)을 가져야만 한다(전윤식 외, 1988). 즉, 정체감 형성이란 정신적 체계를 개별화 시키는 동시에 어떤 단계에서도 방향과 연속성을 갖는 일관된 정체감으로 지속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조은주, 2001).

진로발달이란 결국 안정적인 정체성을 시사하며 그 것은 개인에게 진로선택을 위한 틀, 명료한 자기 지각 형성을 하며 기술발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진로발달의 특징은 결정성과 독립성, 직업정보에 대한 지식, 계획과 의사결정이라고 하였다. Tiede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이란 진로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Super(1953)는 생애에 걸쳐 진로경향성을 확고히 하는데 진로정체감과 같은 의미인 직업적 자아 개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avighurst(1968)는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업을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Piaget, Freud, Erikson은 청소년들이 진로정체감을 갖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추구를 통해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직업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Marcia(1980)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진로정체감을 '내적, 자기 조화된, 충동의 역동적 조직, 능력, 신념, 개인의 역사'라고 정의 하고, 진로정체감이 발달할수록 덜 혼돈되고 특정한 장점과 약점을 지닌 개인마다의 독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Tiedeman & O'Hara(1963)는 진로발달을 진로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체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생각이라고 하였다.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내주는 선별자로 진로정체감을 다른 변인보다 강조 하였으며, Holland & Holland (1977)는 진로정체감이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명확한 확신을 갖는다고 하였고, 진로정체감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진로정체감은 진로선택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과 확신과 관련이 있다.

Harren(1979)은 이상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직업적 자아개념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진

로계획을 위해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진로정체감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낮은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도 진로정체감이 발달하여야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하며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양육태도와 개인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3) 진로결정수준

진로지도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진로결정이라고 하는 Leong와 Chervinko(1996)의 연구에서는 진로관련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각 개인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개인차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과의 정적 또는 부적관계의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Holland & Holland (1977)는 진로정체감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못한다고 하였고, Lunneborg(1976)는 진로결정이 안된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으며, Ginzberg(951)는 진로결정이 개인의 욕구와 환경 사이의 적정화라고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은 개인마다 작용하는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진로결정이 확정 되었는가 또는 미결정 되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진로미결정의 요인을 부정적 성격특성으로 보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진로관련 이론가나 학교 장면에서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합리적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시키고, 진로상담 장면에서는 개별적 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하여 진로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며 진로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정적 상관이 있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등의 진로변인 향상을 시도하고 그 효과 검증의 논문이 발표되어 왔다. 이러한 진로결정은 고등학생뿐 만아니라 대학생들까지 가장 큰 고민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진로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했다고 하는 수준은 본인이 진학할 대학이나 학과, 또는 취업을 결정한 것을 의미하며, 진로 미결정 수준의 학생들은 학과를 정하지 못하였거나 진학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성별과 계열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변인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고3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지지가 성별과 계열별(일반계열, 실업계열, 산업정보계열)로 차이가 있는가와 부모지지가 그들의 진로발달과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녀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별과 계열에 따라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은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3) 부모 지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일반계 고교, 산업정보계(직업계 고교), 실업계 고교 재학 중인 고3 학생을 각각 20개 학급씩 60개 학급을 대상으로 표집했다. 일반계 고교는 남녀공학 2개의 학교에서 각 남학생 5학급씩 10개 학급, 여학교에서 여학생 10학급을, 산업정보계학교는 서울 시내에 3개의 산업정보학교에서 20개 학급을, 실업계학교는 공고 5개 학급, 여자상업학교 5개 학급, 남녀공학 실업학교 10개 학급에서 표집 하였다. 한 학급의 학생수는 15명에서 34명까지 다양하였다. 표집된 학생수는 1,667명이다. 1,667명 중에서 199명은 분석과정에서 불충분한 답변 결과로 제외시키고 1,468명을 분석하였다. 남녀비율은 남학생이 761명(51.5%)이고 여학생이 707명(48.5%)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3. 측정도구의 구성

1) 부모 지지 척도

부모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Barrera(1981)의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ISSB)를 기초로 하여 박지원(1985)이 만든 것을 윤혜정(1993)과 이정희(1999)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랑과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7개의 정서적 지지 문항과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고양, 의사존중에 관한 6개의 평가적 지지 문항,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제공 등으로 구성된 6개의 정보적 지지문항,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5개의 물질적 지지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형으로 '전혀 아니다'는 1점, '아닌 편이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런 편이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6 이다. 내적 타당도는 예비검사 실시 후 대상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은 학생들의 설문지에서 부모 지지가 낮은 값으로 나타나 부모 지지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본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DMSES(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인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CDMSES의 50문항 중에서 Betz와 Voyten이 5개 하위영역(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으로 구분하였으며 5문항씩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진로선택과정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CDMSES-SF는 6점 Likert형 척도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형 척도로 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로 나타났다.

3) 진로정체감 척도 (Vocational Identity Scale)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총 18개 문항으로서 "그렇다"와 "아니다"라고 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김봉환이 Likert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다소 그런 편이다'는 3점, '아주 그런 편이다'는 4점)로 변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goals), 흥미(interests), 성격(personality), 재능(talents)등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0 으로 나타났다.

4) 진로결정수준 척도 (Career Decision Scale : CDS)

진로결정수준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다.(Wanberg & Muchinsky, 1992; 재인용). 진로결정수준 검사는 Osipow 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18개 문항과 자

유반응형(반응한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할 기회를 주는 내용) 문항으로 1개가 포함되어 모두 19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반응형 문항은 채점에 넣을 수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의 2개 문항(예: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지금 다니고 있는 전공에 만족하고 있다)은 진로와 전공이나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며 나머지 16문항은 진로에 관한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진로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진로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이나 졸업 후 자신이 종사할 구체적 직업분야의 선택이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진로미결정이란 앞으로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과 천성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다(Hartman, Fuqua, & Hartman, 1983; Vondracek et al., 1990). 진로를 현재 미결정한 사람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정보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할 능력이 있는데 단지 결정만을 연기하는 것이다. 반면에 결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구분은 Tyler(1961)가 진로 미결정자를 이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학생들은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전공과에 만족하고 있다”를 “나는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전공(학과)에 만족 한다”로 바꾸어 설문하였다. 채점방법은 Likert형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다소 그런 편이다’는 3점, ‘아주 그런 편이다’는 4점)로 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검증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5)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였다.

- ① 연구문제1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평균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다변량분석을 하여 집단간의 차이에 대하여 t-검증과 Scheffe 검증을 하였다.
- ② 연구문제 2는 부모의 지지와 진로발달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부지지와 모지지로 나누어 하였다.
- ③ 성별과 부모지지에 의해 진로발달변인에 영향을 주며 예측할수 있는가?와 계열별과 부모지지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예측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으로 부모동거 여부, 고등학교 선택시 결정자, 계열별 학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부모동거는 부모 지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조건이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부모와의 동거에 따라 진로발달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 시 누가 결정을 하여 진학을 하였는가는 그들의 진로발달과의 영향이 있는가를 보기위한 기초조사 설문을 하였다. 3계열 학생들의 특성으로는 부모동거 여부와 진로발달 충점을 비교하였으며, 계열별 특성에 따라 설문을 다르게 조사하였다.

일반계 학생들은 ‘다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면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 하겠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일반계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하였다. 산업정보계 학생은 산업정보계 학교 선택을 누가 하였는가와 자신이 현재 공부하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실업계 학생들은 현재 공부하는 전공과 진로 선택이 전공과 연계성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계 학생들은 ‘고교를 다시 선택한다면’에서 일반계를 다시 선택 한다는 학생이 53%, 실업계를 선택하겠다고 한 학생은 21%, 특목고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일반계 고3학생들의 47%가 다른 계열을 원하고, 실업계를 희망하는 21%는 취업이나 자격증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정보계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어느 정도 만족 이상이 61.3%이나 실업계는 36.5%로 산업정보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2. 성별과 계열에 따른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의 차이 비교

부모 지지는 총점이 24~100점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25~125점,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은 18~72점 범위이다. 또한 문항별 평균의 범위는 부모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이고,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은 4점 척도이다.

1) 성별에 따른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의 차이 비교

Levene의 등분산성에 대한 검정으로 두 독립집단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산이 동일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표 2>에서 t-검증 결과 모두 두 집단의 부 지지, 모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동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			
부동거	평균	79.79	40.85	44.33			
	N	33	33	33			
	표준편차	14.32	7.12	5.68			
모동거	평균	85.46	43.42	46.54			
	N	138	138	138			
	표준편차	15.05	10.40	7.11			
부모비동거	평균	87.71	44.99	46.63			
	N	1284	1285	1285			
	표준편차	14.05	9.66	7.06			
합계	평균	82.25	46.25	49.25			
	N	12	12	12			
	표준편차	15.93	7.71	6.00			
구분	일반계 N=586	산업정보계 N=425	실업계 N=457	계 N(%)			
부모동거여부	부모동거	560(95.6)	372(87.5)	353(77.2)	1285(87.5)		
	부동거	1(2)	7(1.6)	25(5.5)	33(2.2)		
	모동거	24(4.1)	41(9.6)	73(16)	138(9.4)		
	부모비동거	1(0.2)	5(1.2)	6(1.3)	12(0.8)		
고교선택시결정자	본인	397(68)	193(45)	305(67)	895(61)		
	부모	115(20)	177(42)	43(9)	335(23)		
	교사	18(3)	19(4)	75(16)	112(7.9)		
	기타	54(6)	36(9)	34(8)	124(8.1)		
일반계 학생의 고교다시선택	학생수 (%)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	보통 만족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못함	
	계열						
일반계	309명 (53)	산업정보계 424명 (%)	89 (21.0)	171 (40.3)	101 (23.8)	49 (11.6)	14 (3.3)
실업계	120 (21)	실업계 456명 (%)	30 (6.5)	123 (30.0)	159 (35.0)	103 (22.6)	41 (8.9)
특목고	148명 (26)						

<표 2> 성별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구분	N	총점M(SD)	t
부 지지	남	710	83.8(20.6)
	여	707	86.4(22.0)
모 지지	남	711	86.3(18.0)
	여	701	89.6(1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남	761	86.2(14.0)
	여	706	88.5(14.4)
진로정체감	남	761	44.0(9.7)
	여	707	45.6(9.6)
진로결정수준	남	761	45.6(7.0)
	여	707	47.7(7.0)

*<.05, **<.01, ***p<.001

2) 계열별에 따른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의 차이 비교

세 계열의 진로발달 평균 분산의 동질성이 검증되어($p>.05$) 집단간 차이 검증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하였다.

<표 3>에서 부 지지는 통계적으로 F값이 유의미하여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계열별간 차이는 일반계와 산업정보계 간의 차이가 있고 일반계와 실업계, 산업정보계와 실업계는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모 지지는 실업계의 평균이 다른 계열 보다 조금 높고, 그 외의 변인들은 모두 일반계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는 계열별로 모 지지는 통계적으로 F값이 유의미하지 않아($p>.05$), 집단 간 차이가 없다.

<표 3> 계열별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구분 (만점)	계열	N	총점 (MD)	F	Sheffe
부 지지	일반계	567	86.8(20.3)	4.816**	A
	산업정보계	403	82.5(21.7)		B
	실업계	408	85.3(22.1)		A B
모 지지	일반계	586	88.2(17.4)	2.203	A
	산업정보계	425	86.4(18.3)		A
	실업계	457	88.9(19.3)		A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일반계	585	89.3(14.0)	10.987***	A
	산업정보계	425	86.6(13.6)		B
	실업계	457	85.3(14.7)		B
진로정체감	일반계	586	45.7(9.9)	11.985***	A
	산업정보계	425	45.5(9.4)		A
	실업계	457	42.9(9.4)		B
진로결정수준	일반계	586	47.3(6.9)	6.805***	A
	산업정보계	425	46.6(7.4)		A B
	실업계	457	45.7(6.7)		B

<.01, *p<.001

모 지지는 각 계열마다 인지하는 지지도가 같은 것은 아버지 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유연하며 어느 집단이나 비슷한 인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으며 일반계와 산업정보계, 일반계와 실업계간의 다른 집단으로 분류된다. 실업계와 산업정보계는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일반계는 진학을 주로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산업정보와 실업계는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표 3>에서 일반계와 산업정보계는 동일집단이고 산업정보계와 실업계, 일반계와 실업계는 다른 집단으로 분류된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그림(picture)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업계 학생들은 일반계나 산업정보계 학생들보다 직업에 대한 목표나 안정된 그림이 적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모든 계열 학생들의 진로가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업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이 커다란 부담으로 느끼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현재의 학습능력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은 일반계와 실업계는 다른 집단이고 일반계와 산업정보계는 같은 집단, 산업정보계와 실업계는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일반계는 진로결정수준이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부분 대학교 진학이 목적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산업정보계와 실업계 학생들은 아직 취업과 대학진학 간의 결정이 안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과의 상관관계

<표 4>에서 부 지지, 모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의 상관 분석에서 3개의 진로변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변인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지지가 고3 학생의 진로발달과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모 지지와의 상관이 부 지지보다 더 높으며, 하위변인에서는 직업정보가 부 지지, 모 지지와 가장 상관이 높아 부모가 직업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해결은 가장 상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 지지, 모 지지와 진로 변인과의 상관관계

구 분		부 지지 (N=1378)	모 지지 (N=146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1***	.33***
4개의 하위요인	직업정보	.29***	.32***
	목표설정	.26***	.26***
	진로계획	.25***	.27***
	문제해결	.22***	.23***
	자기평가	.27***	.30***
진로 정체감		.17***	.15***
3개의 하위요인	자신의 이해	.18***	.18***
	직업정보이해	.06**	.11***
	능력과 자신감	.15***	.16***
진로결정수준		.18***	.18***

*** $p < .001$

진로정체감과 부모 지지와의 상관은 모 지지보다 부 지지와의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하위변인과의 상관은 자신을 이해하는 변인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지지해줌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부 지지, 모 지지가 같은 상관 값으로 나타나 부모의 영향력이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전공으로 직업선택(25.2%), 전공 이용한 다른 직업 선택(20.6%), 전공과 다른 직업선택(33.5%), 전혀 예측 할 수 없다(20.8%)

4. 계열별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상관관계

1) 계열별 학생의 부모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

<표 5>에서 부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3계열 남녀 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이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부지지와 여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상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 지지와 진로정체감은 일반계는 남녀 모두유의미한($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있게 나타났고, 산업정보계 여학생도 높게 상관이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실업계 학생도 여학생만 정적으로 상관이 있으나 남학생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일반계와 산업정보계 남녀학생은 모두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계 학생은 여학생은 $p < .05$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상관이 없으며 부적인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3계열 중 실업계 남학생들만 그들의 진로발달과 부지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계열별 남녀의 부모 지지와 진로 변인과의 상관관계

구 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정체감	진로결정 수준	
부 지지	일반계(567)	남 252	.465**	.409**	.190**
		여 254	.605**	.522**	.335**
	산업정보계(403)	남 256	.222*	.058	.146*
		여 147	.302*	.224*	.217*
	실업계(408)	남 198	.246**	-.082	-.071.
		여 210	.580**	.561**	.214**
모 지지	일반계(542)	남(263)	.475**	.416**	.250**
		여(279)	.598**	.509**	.273**
	산업정보(415)	남 276	.279**	.058	.119*
		여 139	.343**	.218**	.212**
	실업계(455)	남 221	.229**	.212**	.268**
		여 234	.580**	.562**	.283**

** $< .01$

모 지지와 진로발달의 상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상관은 3계열 남녀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모든 진로발달에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일반계와 산업정보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1$)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있으나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발달은 모 지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도 일반계와 산업정보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p<.001$)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나, 실업계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발달이 모 지지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부모 지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다중 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 값이 높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모 지지와 부 지지)간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6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검증은 회귀모형의 VIF값(1.74)과 Tolerance값(.58)을 조사하였으며, 이런 결과에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차항간의 상관을 확인하기위해 잔차 분석을 Durbin-Watson 검증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잔차간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 1.92~2.00). 마지막으로 잔차의 정규분포성을 보기 위하여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과 회귀 표준화 잔차 정규 P-도표를 보면 히스토그램은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또한 누적확률분포를 나타내는 P-P도표도 대각선 직선의 형태를 나타냈다

1) 부모지지와 성별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1) 부 지지와 성별이 계열별 학생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6>에서 일반계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발달에 남녀에 의한 영향을 받지 못하나 부지지에 의해 유의미($***p<.001$)하게 영향을 받는다. 산업정보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남녀에 의한 영향은 없고 부지지에 의한 영향이 유의미하게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계열 모두 남녀에 의하여 예측을 하지 못하나 부지지는 유의미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설명력은 6~11%정도로 약하나 영향력은 유의미($p<.001$)하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일반계와 산업정보계 학생들은 남녀와 부지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계 학생들은 부지지 영향력이 산업정보계 학생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실업계 학생들은 남녀와 부지지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결정수준도 일반계와 산업정보계 학생들은 남녀와 부지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계 학생들은 남녀와 부지지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계와 산업정보계학생들은 설명력은 4~5%정도이나

남여학생과 부지지가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데 영향($\beta=14\sim17$)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6> 부 지지와 성별이 계열별 학생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계열별 진로발달		B	β	R ²	Adjusted R ²	F
일반계	남녀	1.82	.058	.11	.10	36.32***
	부지지	.24	.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산업정보계	1.20	.04	.07	.07	15.28***
	부지지	.15	.25***			
실업계	남녀	1.88	.06	.06	.06	14.61***
	부지지	.15	.23***			
진로정체감	일반계	2.03	.10*	.05	.05	16.29***
	부지지	.09	.20***			
산업정보계	남녀	1.60	.07**	.02	.01	3.87*
	부지지	.05	.07*			
실업계	남녀	1.42	.07	.01	.002	1.41
	부지지	.01	.03			
진로결정 수준	일반계	2.91	.15***	.05	.04	14.69***
	부지지	.06	.14***			
산업정보계	남녀	2.87	.13***	.04	.04	9.49***
	부지지	.07	.17***			
실업계	남녀	1.51	.08	.01	.004	2.01
	부지지	.01	.03			

*** $p<.001$, * $p<.05$ N(남=706, 여=611)

(2) 모 지지와 성별이 계열별 학생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7>에서 일반계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발달에 남녀학생은 모지지에 의해서는 유의미($***p<.001$)하게 영향을 받는다. 산업정보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남녀에 의한 영향은 없고 모지지에 의한 영향이 유의미하게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계열 모두 남녀에 의하여 예측을 하지 못하나 부지지는 유의미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설명력은 7~8%정도로 약하나 영향력은 유의미($p<.001$)하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일반계와 산업정보계 학생들은 남녀와 모지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3%와 1%로 미비하나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실업계 학생들은 남녀와 모지지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로결정수준도 일반계와 산업정보계 학생들은 남녀와 모지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계 학생들은 남녀와 모지지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계와 산업정보계학생들은 남녀와 모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게 영향($\beta=10\sim16, p<.001$)을 주고 그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표 7> 모 지지와 성별이 계열별 학생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계열별 진로발달		B	β	R ²	Adjusted R ²	F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일반계	남녀	1.79	.06	.08	.07	36.32***
		모지지	.22	.26***			
	산업정보계	남녀	.91	.03	.09	.09	
		모지지	.22	.30***			
	실업계	남녀	1.30	.04	.09	.08	
		모지지	.22	.29***			
진로 정체감	일반계	남녀	1.99	.09*	.03	.03	9.49***
		모지지	.08	.13***			
	산업정보계	남녀	1.38	.06*	.02	.01	
		모지지	.06	.11***			
	실업계	남녀	1.64	.08	.01	.002	
		모지지	-.07	-.02			
진로결정 수준	일반계	남녀	3.04	.16***	.04	.04	12.89***
		모지지	.05	.10**			
	산업정보계	남녀	2.24	.11***	.03	.03	
		모지지	.07	.14***			
	실업계	남녀	1.71	.09*	.01	.01	
		모지지	-.04	-.01			

***p<.001, *p<.05 N(남=760, 여=652)

2) 부모지지와 계열별이 남녀별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1) 부지지와 계열이 남녀별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8> 부 지지와 계열이 남녀별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계열별 진로발달		B	β	R ²	Adjusted R ²	F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남	3계열	-1.41	-.07*	.09	.09	41.06***		
		부지지	.21	.29***					
	여	3계열	-1.74	-.10**	1.02	.10			
		부지지	.19	.30***					
	진로 정체감	남	3계열	-1.03	-.08*	.01		.01	3.56*
			부지지	.02	.05				
여		3계열	-1.68	-.15***	.06	.06			
		부지지	.08	.19					
진로결정 수준		남	3계열	-.59	-.05	.01	.004	2.45	
			부지지	.03	.06				
	여	3계열	-1.43	-.14***	.04	.04			
		부지지	.06	.15***					

***p<.001, *p<.05 (남=710, 여=707)

<표 8>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남학생은 계열별 영향이 부적으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주며 설명력은 9%로 나타나며 부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beta=29, p<.001$)하게 영향을 미치고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계열이 미치는 여향이 남학생보다 더 크며 통계적으로 p<.01수준에서 유의미하며 부적영향을 주고, 부지지는 10%의 설명력과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효능감은 계열과 부지지에 의해 예측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진로정체감은 남학생이 계열별 영향을 부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부지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계열별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p<.001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계열과 부지지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정체감은 계열에 의한 예측을 할 수 있으나 부지지에 의한 예측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진로결정수준은 남학생은 계열이나 부지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계열에 의해 통계적으로(p<.001)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부지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p<.001) 영향을 미치며 그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계열과 부지지에 의해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 모지지와 계열이 남녀별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표 9> 모지지와 계열이 남녀별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계열별 진로발달		B	β	R ²	Adjusted R ²	F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남	3계열	-1.47	-.07*	.08	.08	37.20***		
		모지지	.21	.27***					
	여	3계열	-1.74	-.10**	.09	.09			
		모지지	.21	.28***					
	진로 정체감	남	3계열	-1.24	-.09**	.01		.01	3.80*
			모지지	.02	.03				
여		3계열	-1.60	-.14***	.04	.04			
		모지지	.07	.14***					
진로결정 수준		남	3계열	-.67	-.06	.01	.003	2.44	
			모지지	.02	.05				
	여	3계열	-1.32	-.13***	.03	.03			
		모지지	.05	.12***					

p<.01, *p<.001 (남=710, 여=707)

<표 9>에서 남학생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계열이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beta = -.07, p < .05$), 모 지지에 의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beta = .27, p < .001$) 설명되며 계열과 모지지에 의한 영향력의 설명력이 8%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계열에 의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beta = -.10, p < .01$), 모지지에 의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beta = .28, p < .001$) 계열과 모지지가 미치는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계열과 모 지지는 남학생과 그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계열과 모지지에 의한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남학생은 계열에 의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beta = -.09, p < .01$), 모 지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과 모지지가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로 나타나 설명력은 적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계열과 모 지지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회귀계수가 유의미($p < .001$)하고 설명력은 4%이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그 결과는 계열과 모지지에 의해 진로정체감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계열과 모지지는 통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계열이 미치는 영향력이($\beta = -.13, p < .001$)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설명력은 3%로 나타났다. 또한 모지지에 의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beta = .12, p < .001$)을 받으며 그 설명력은 3%로 나타나 여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예측하는데 계열과 모지지가 통계적으로($p < .001$)유의미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여학생은 모 지지가 3개의 진로발달 변인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와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으로 부각되는 진로결정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즉, 부모 지지가 진로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 분석하여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역할을 강조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연구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별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그 결과 진로발달수준도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변인 중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가지는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진로에 관련된 행동 수행에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계열별 학생들의 부모 지지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가 나며 일반계 학생들이 부모가 지지를 가장 많이 해준다고 인식하였고, 그 결과 진로발달 변인의 평균점수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업정보계 학생들은 특히 부 지지가 3계열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에 실업계 학생들은 모 지지를 가장 높게 지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업계 학생들은 모 지지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 성별에 따라 부모 지지를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도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 차이 검증결과로 t-검증에서 부모 지지가 성별에 따라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01$)에서 차이가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1$)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허자영(1996), 김동준(1997), 고향자(1992)는 남학생이 더 높으며 또한 김관석(2001)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 더 높게 나온 이유는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이 직업보다는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은 대학진학과 연결됨에 따라 성별 진로발달수준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Lopez와 Andrew(1987)가 일반계 학생이 실업계보다 높다고 한 것이 대학진학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여학생의 부모 지지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 더 높은 원인으로 부모 지지를 여학생이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Lopez(1989)가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발달 한다고 한 것과 일치하며 고문정(2002)의 연구와도 일치 한다.

계열별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을 비교해 보면 계열별 차이검증에서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3변인 모두 일반계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관석(2001)은 일반계와 실업계 진로발달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계열별 차이

가 유의미하지 못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지 못한다. 반면에, 정윤경(2000)이 실업계와 일반계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일반계의 진로발달수준이 더 높다고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Lopez와 Andrew(1987)역시 실업계 학생이 직업을 택하는 것보다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일반계 학생보다 진로불만족을 갖게 되어 더 낮은 것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3계열 간의 진로발달의 집단간 차이에서 부 지지를 비교해보면 산업정보계 학생들은 일반계와 다르고 실업계와 같은 집단이며, 실업계는 일반계와 같은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부 지지에 대한 인식이 산업정보계열 학생들이 3개의 집단 중에서 가장 낮게 인식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지지, 모 지지의 총점 점수가 산업정보계학생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어 이들은 두 번의 교교선택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 고교를 선택 할 때 부모님의 의지로 일반계 고교를 선택하였고 그 당시 자신의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 부모와 힘든 상황을 겪었을 것이고, 다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본인들이 산업정보계로 진로를 변경 할 때, 본인이 산업정보계 학교 선택이 82.1%로 부모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가 다른 계열보다 부모 지지를 낮게 인식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정보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산업정보계 학생들은 고2 때 전공을 선택하였고 산업정보학교와 전공을 자신이 선택한 학생이 실업계열보다 더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가 또한 진로발달수준에 영향을 주어 진로발달 3변인이 실업계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계열 모 지지 평균비교에서 실업계 학생들의 모 지지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회귀분석결과 진로발달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어려운 사회적 환경(경제적, 학습능력, 가족관계, 학교생활 만족 등)속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집단간 차이에서 모 지지는 3계열 모두 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는 세 집단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거의 비슷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둘째, 연구문제 2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부모 지지는 3개의 변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가 다른 진로변인보다 높고,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세 변인이 모두 유의미하여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은 정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부모 지지와 진로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부모와 더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열별 부모 지지와 진로발달 상관관계에서 진로변인 3개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계열 모두 부모지지와 가장 상관성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어 부모지지를 여학생이 더 받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문제 3에서 부 지지, 모 지지와 진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성별과 부모지지에 의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위하여 남녀와 부모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 하였으며, 또한 계열별과 부모지지에 의해 남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위해 3계열과 부모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에서 성별과 부모 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고 있음은 부모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기 중후기에 속한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지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지지를 해주고 격려 해줄 때,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영자(2000)는 가족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특히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부모 지지의 영향을 강조 하였다. 표에서 부 지지, 모 지지 모두 진로발달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부 지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값이($p < .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설명계수도 통계적으로 $p < .001$ 에서 유의미하여 부모 지지가 진로발달 3변인 모두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수준을 높이는 데 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변인에서 회귀계수가 더 크고 설명력(R^2)도 커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으며,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또한 진로발달 총점도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정체감은 회귀값이 남학생, 여학생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부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지지에 의해서는 여학생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은 진로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을 덜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도 여학생만 부 지지와 모지지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는다고 나타나 부모의 지지에 의해 여학생은 진로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 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개의 진로변인에서 모두 회귀값이 더 높게 나타났고 설명력도 더 크게 나타나 부모의 영향을 훨씬 더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열별에 따른 부모 지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 지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계열과 산업정보계열은 회귀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부모 지지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계학생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고 진로정체감과 진로 결정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일반계와 산업정보계학생들은 부모지지에 의해 진로발달의 영향을 받음이 예측 가능하나 실업계학생들은 부모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한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받

달 시켜주어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의 진로 발달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에 맞는 적극적인 부모 역할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시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부모교육 실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에 있는 학교 고3학생들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산업정보계열 학교가 적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고등학생 집단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둘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하지 않고 각 학교 교사에게 부탁하여서 부모와의 동거에 질문이 많았다고 한다. 부모 지지 척도는 부모와의 동거를 준거로 하였기 때문에, 비동거(자취, 이혼, 친지 동거 등) 학생들의 부모지지에 대한 조사의 제한점을 가졌으며(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킴) 다음 연구에서는 부모 비동거학생의 부모지지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들 중의 많은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정에 있고 진로결정이 성적과 관련이 많으며 또한 학력 수준이 전문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수준에서는 진로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 접수 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3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0월 01일

【참 고 문 헌】

강영자(2000).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한국생활과학지*, 9(4), 421-428.

고문정(2003). 부모의 사회적지지 및 청소년의 내외통제성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관석(2001).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준(1997). 진로미결정 문제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2001). 상담전공자의 진로 및 직업개발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2(2), 263-277.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애(1994). 사회적 지지, 자기 지각과 자아방어기제,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김의철·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 만족도. *교육심리연구*, 16(2), 63-92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봉연(1983).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향숙·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오은경(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희정 (1995). 전문대 여대생의 취업에 관한 의식과 취업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2(3), 65-86.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재창 등(2002).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문음사

이정희(1999). 자아정체감과 진로미결정 문제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주연(2001). 일반 청소년과 통신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윤식 외(1988). 부산대학교 신입생의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4, 1-44.

조은주(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vison, W. R. & McAlpine, D. D.(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Bandura, A.(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Barrera, M.(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nat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CA: Sage.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202.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rites, J. O. & Savikas, M. L.(1996).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131-138.
- Crites, J. O.(1981). *Creer models: Models, methods, and material*. New York: McGraw-Hill.
- Popenoe, D.(1993).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527-555.
- Dignan, S. M. H.(1965). Ego iden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476-483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inzberg, E.(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ldenberg, I. & Goldenberg, H.(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 Belmont, CA: Wadsworth Pub. Co.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vighurst, R. J.(1968).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ologist Press.
- Holanhan, C. J., Valentinier, D. P. & Moos, R. H.(1995). Parent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nce*, 24, 633-648.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 L. & Holland, J. 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iligy*, 24, 404-414.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 C.(1984). Relation of self-efficacy expect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56-362.
- Leong, F. T. & Chervinko, S.(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reer Assessment*, 4(3), 315-329.
- Lopez, F. G. & Andrew, S.(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304-307.
- Lopez, F. G.(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a family 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Lunneborg, P. W.(1976).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402-404.
- Marcia, J. 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r, M.(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1980.
- Peterson. A. C.(1980). *Biopsychosocial development of sex-related differences*. In J. Parsons(Ed.), *Psychobiological Bases of Sex-Role Related Behaviors*. Washington D. C.: Hemisphere.
- Robbins, S. B.(1985). Validity estimates for the career decisions-making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71.
- Spokane, A. R.(1991). *Career interven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uper, D. E., Starishevsky, R., Matlin, N. & Jordaan, J. P.(1963). *Career development: Self 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iedeman, D. V. & O'Hara, R. P.(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Princeton, NJ: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yler, L. E.(1961). Research explorations in realm of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195-201.
- Wanberg, C. R. & Muchinsky, P. 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